

창의성, 개성, 동조성에 따른 고교생의 의복행동 연구*

A Study on the Clothing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in terms of Creativity, Individuality and Conformity*

서남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이 선 경

서남대학교 사회과학부

부교수 정 준 교

Dept. of Fashion Design, Seonam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ungyung Lee

Faculty of Social Science, Seonam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Jun-Gyo Jeong

◀ 목 차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결과 및 논의

V. 결 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clothing behavior in terms of creativity, individuality and conformity. The subjects were 317 boys(mean age: 18) and 312 girls(mean age: 18) in third grade of high school, in which were situated at north and south part of Han-River in Seoul. They were administered with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to measure the attitudinal and behavioral conformity, creativity, individuality, clothing conformity, clothing nonconformity, clothing confidence, aesthetic sense, clothing importance, fashionability. Results indicated that (1)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high creativity showed higher scores in clothing nonconformity, clothing confidence, aesthetic sense, clothing importance than those who have low creativity.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in clothing conformity and

Corresponding Author: Sungyung Lee,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Seonam University, 720 Gwangchi-dong, Namwon-si, Jeonbuk 590-711, Korea Tel: 82-63-620-0284 Fax: 82-63-620-0013 E-mail: sglee@seonam.ac.kr

* 이 논문은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 지방대육성과제지원 연구비의 일부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2001년도 대한가정학회 추계발표 논문을 수정한 것임.

fashionability($p<0.001$). (2)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high individuality showed higher scores in clothing conformity clothing, nonconformity, clothing confidence, aesthetic sense, clothing importance and fashionability than those who have low individuality($p<0.001$). (3) Students who have low attitudinal conformity showed higher scores in clothing nonconformity, clothing confidence and aesthetic sense($p<0.001$) and lower score in information and norm specific clothing conformity($p<0.05$) than those who have high attitudinal conformity. And those who have high behavioral conformity showed higher score in clothing conformity than those who have low behavioral conformity($p<0.05$). From these findings, we could find that the importance of creativity and individuality was greater than that of conformity in clothing behavior.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and following studies were suggested.

주제어(Key Words): 창의성(creativity), 개성(individuality), 동조성(conformity), 의복행동(clothing behavior)

I. 서론

21세기 미래 사회는 다양화시대, 전문화시대, 정보화시대이므로 날로 변모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화사회에서의 노동은 산업사회의 그것과 달라서 창의적인 것 이외의 단순작업은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날로 심해지는 현실에서, 어떤 국가, 사회나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적이지 않으면 안되고, 그래서 창의성교육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IMF쇼크와 문제의 뿌리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IMF 사태는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제도와 이로 인한 창의성의 빈곤이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박재광, 1998).

그만큼 창의성은 지난 세기와 21세기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따라서 사회일반(기업체나 기관들)이나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창의성에 대한 연구나 그 개발은 이제 보편화되다 시피한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창의성 연구는 1950년도 Guilford가 미국 심리학회에서 창의성의 개념에 대하여 연설을 한 이후부터 꾸준히 발전되어 왔고,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음에도 전통적으로 심리학에서는 경시되어 왔다. 그것은 창의성 학문의 근원이 모호하고, 창의성에 대한 접근이 상업적인 것과 관계되어 실용적인 인상을 주고, 창의성에 대한 형상파

악과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었다(Sternberg와 Lubart, 1996).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간에서는 소수의 천재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창의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전문적인 수준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즉,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전문분야에서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시대가 아니고, 개개인이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항상 창의적인 생각과 이를 실천에 옮겨 행복한 삶을 각자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전경원, 2000).

의식주에 창의성을 접목해 보면, 의식주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더 쉽게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식이고, 그 다음이 의일 것이다(전경원, 2000). 의생활은 그만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이지만, 이제까지 창의력과 의생활이 관련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창의성 개념의 불분명성과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에 정준교와 이선경(1999a)은 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복을 변형시켜서 입은 복장변형집단은 비변형집단보다 창의성과 개성, 의상심미성이 더 높은 것을 발견했다. 비행청소년이 아닌 일반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들은 창의성이 의복행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의성과 일반적인 의복행동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또한 창의성과 관계된 개성, 창의성을 억누르는 동조성 및 일반적인 의복행동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까지는 의복동조성, 유행 연구에만 국한된 개성 및 동조성 변인의 일반 의복행동변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있었지만, 창의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의복행동은 동조적인 부분도 적지 않지만,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부분 역시 적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행동 중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창의성, 개성과 기존에 연구되어 온 동조성을 의복행동과 함께 연구함으로써, 동조적인 영역에 집중되어져 온 의복행동연구를 창의성 및 개성 영역으로 확장함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창의성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Rhodes(1961)에 의하면, 창의성은 56개 이상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 또 연구과제들을 다루는데, 결국은 4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이 유명한 창의성의 고전인 4P(Person, Process, Product, Place)인데,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인 과정, 창의적인 산출물, 창조물이 나올 수 있는 창의적인 환경이나 장소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는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의 지능, 성격특성, 태도, 가치관, 행동특성 등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는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여,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절차들, 즉, 창의성이 산출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셋째는 새로운 생각이나 발명, 디자인, 제도, 형태, 작품 등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의 결과로 얻어진 산출물이다. 넷째는 창의적인 사람과 그를 에워싼 물리적, 심리적인 제반 환경 및 상황의 성격과 영향이다. 수많은 창의성의 정의를 4P로 구분 짓는 방법이 오늘 날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

로 창의성을 정의한 전경원(2000)에 의하면 창의란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와 문화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물건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의견을 생각해 내는 능력 또는 그것을 기초화하는 인격적 특성으로 창의력과 창의성을 포함한다. 이 정의에서 창의력이란 발산적 사고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생산적 사고력과 같은 창의적인 능력으로 민감성, 상상력,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과 독창성 같은 하위요인을 의미하며, 일체의 창의적 과정과 산출물에 관한 것을 일컫는다. 창의성은 개방성과 같은 창의적인 성격을 의미하는데 창의적인 과정과 산출물로 유도하는 창의자의 성격과 환경에 관한 것을 일컫는다고 정의하였다. 최종인(1995)은 인지적 능력과 성격특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나 산출물을 생산해 내고자 하는 자발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Torrance(1972)는 창의적인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낱말 84개를 열거하였는데 그 중에는 자신감, 심미적 감각, 비동조적 성향, 개인주의적 성향 등이 포함되었고, 송인섭과 김혜숙(1999)은 호기심과 흥미다양성, 개성과 특이선호, 탈규범성, 개방성을 들었다.

창의성을 의복행동과 관련시켜 볼 때 복잡변형행동을 더 많이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창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준교와 이선경, 1999a).

2. 개성

개성이란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에게 특유한 특징이나 성질, 성격, 성향(한글학회, 1991), 개인이 외양이나 지리적 위치 또는 의사소통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대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짐을 느끼는 상태(Maslach 등 1985; Maslach 등, 1987)를 말한다. 또한 Kefgen과 Touchie-Specht(1976)는 자연스러운 것, 독창적인 것,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것, 다른 모든 사람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을 유행이라고 해서 채택하지 않는 것, 틀에 박히지 않는 것 등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개성은 아무도 갖지 않는 독특하고 특별한 특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재능을 찾아내어 그것을 최대한 계발하는 것, 즉 자신의 고유한 흥미를 추구하고 특별한 것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성은 동조성과 상반된 성향으로 존재하는데, 개성주의자와 동조자는 성격과 행동성향에서 뿐만 아니라(Crutchfield, 1955) 행동의 주동기(Fromkin, 1973)에서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준교와 이선경(1999b)에 의하면 개성과 창의성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개성과 태도동조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복장변형 학생들이 비변형 학생들보다 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준교와 이선경, 1999a).

3. 동조성

동조성이란 실제 또는 가상의 집단압력, 즉 심리적 압력의 결과로서 집단이 기대하는대로 신념이나 행동이 변화하는 것(Kiesler와 Kiesler, 1969)을 의미한다.

Deutsch와 Gerard(1955)는 동조를 유도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규범적 영향과 정보적 영향으로 구별하여 설명하였으며, Kelman(1958)은 한 개인이 사회적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개인의 동기형태에 따라 순종, 동일시 및 내면화로 구분하였다.

소비자행동연구에서는 사회심리학의 동조이론을 도입하여 준거집단영향의 유형을 규범적 영향, 정보적 영향 및 동일시 영향으로 분류하여 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준거집단이란 한 개인이 인정 받기를 바라고 또한 계속해서 구성원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집단이며, 개인은 이러한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일치된 의견이나 태도를 받아들이고 이에 동조해야 한다. 이러한 구성원에게 행위의 기준을 세워주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준거집단의 영향을 규범적 영향이라 한다(Kelley, 1952). 또한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며, 이 과정에서 특히 준거집단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 정보적 영향이다. 이때 소비자는 의견선도자나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을 택한다(Park과 Lessig, 1977). 마지막으로 매력을 느끼고 있는 준거집단 구성원들과 만족스러운 자기정립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준거집단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제품이나 상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제품이나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그 준거집단과 관련된 자신의 일체감을 찾으려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동일시 영향이다(Park과 Lessig, 1977).

이와 같은 동조성은 진보와 사회적 다양성에 필수적인 창조적 상상과 활동들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Horn과 Gurel, 1981).

한편 동조 압력에 대한 반응은 사회적 영향력의 승인 및 동조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동조 행동으로도 나타난다. 많은 연구자들이 행동적인 면에서 동조를 한 차원의 현상으로 간주하였으며, Allport(1934), Walker와 Heyns(1962)는 비동조를, Asch (1956)와 Jahoda(1959)는 독립을 동조의 반대극에 해당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Willis(1963)는 두 차원 모델인 삼각형 모델을 제시하였고, Willis와 Hollander (1964), Hollander와 Willis(1964) 등이 이것을 사용하였다. 삼각형 모델은 동조와 반동조의 축과 독립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순수한 동조는 다른 사람과 일치하는 쪽으로의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순수한 독립은 이전의 반응과 나중의 반응에서 변화가 없는 것, 순수한 반동조는 다른 사람과 일치하지 않는 쪽으로의 지속적인 변화이며, 동조와 마찬가지로 규범적인 기대에 의존적이나 부정적인 방향이다(Willis와 Hollander, 1964).

이러한 동조성은 창의성과 관련지어 볼 때 태도 동조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정준교와 이선경, 1999b).

4. 의복행동 변인

1) 의복동조성과 의복비동조성

의복동조란 실제 혹은 가상의 집단압력의 결과로

집단에 의해 지지받는 방향으로 의복에 대한 태도나 행동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Davis, 1984).

박혜선(1990)은 사회심리학에서의 동조동기의 유형과 준거집단의 영향유형들을 고려하여 의복동조 유형을 동조의 동기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준거집단의 의복규범을 따르는 규범적 의복동조, 적절한 복식행동을 하기 위하여 준거 집단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 이에 동조하는 정보적 의복동조, 및 개인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좋아하는 준거집단과 동일시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복을 모방하는 동일시적 의복동조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정보적 의복동조와 동일시적 의복동조는 하나의 의복동조유형으로 보고 의복동조의 유형을 동일시적 의복동조와 규범적 의복동조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의 의복동조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의복동조의 반대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는 비동조와 개성이 있으며, 동조의 반대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개성의 의미도 두 차원 모델의 반동조와 독립의 개념이 혼용되어 왔으나, 박혜선(1990)은 의복비동조의 유형을 의복반동조와 의복독립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의복반동조는 준거집단이나 다른 사람들이 착용하는 의복과는 다른 의복, 즉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복식행동이며, 의복독립은 준거 집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복과는 상관없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이 두 유형의 의복비동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동조적인 복식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대생들은 창의성, 개성, 심미성에 낮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었으며(Taylor, 1967), 동일시적 의복동조와 규범적 의복동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동조성이 강하고, 반동조적 의복행동과 독립적인 복식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의복자신감이 강하고, 동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선, 1990).

2) 의복자신감

박혜선(1990)은 의복자신감을 자신이 의복을 잘 입는다고 생각하고 의복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Horn과 Gurel(1981)은 의복의 올바른 형태에 대한 확신이 적을 때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보다 의존하기 쉽고 하였으며, 박광희(1983)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가 높은 사람은 의복동조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bolt와 Drake(1984-85)의 직장여성복에 대한 연구에서는 의복에 대한 자신감이 클수록 직장 밖의 사람들로 부터 받아들이는 규범적 영향과 정보적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의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반동조나 독립적인 복식행동을 많이 하며, 의복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동일시적 의복동조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선, 1990).

3) 의상심미성

의상심미성이란 의복 자체의 디자인, 색채, 재질 등에 대한 미적 감각 및 의복이나 장식을 자신의 신체적 외모와 조화를 이루도록 착용함으로써 외모의 아름다움을 성취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박혜선과 김화순(1998)에 의하면 심미성은 의복 착용시 자신의 신체적 외모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의복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Hurlock(1929)은 청소년기에는 비실용적이고 잡다한 것이라도 의복의 매력을 더해준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고, Creekmore(1971)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미적 가치관이 높은 여대생은 의복의 외모를 중요시하며 의복을 아름답게 입으려 노력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금주와 문은영(1993)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상상의 청중을 남학생들보다 더 많이 의심함이 나타났다. 정준교와 이선경(1999a)에 의하면 복장변형자들이 비변형자들보다 의상심미성이 높았다.

4) 의복중요성

정미실(1982)은 의복중요도를 의복을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남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의복동조와 의복중요도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abolt와 Drake (1984-85)의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장복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는 사람들이 직장 내의 사람들로 부터 규범적 영향과 정보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광희(1983)는 의복중요도를 의복에 관심을 두며 의복을 통해 자신을 더 좋게 보일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 정의하고 여고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복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나 의복중요도와 의복동조는 유의한 상관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동조성과 의복중요성과의 연관성을 박혜선(1990)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일시적 의복동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조성이 강하다. 반동조적인 복식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복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며, 동조성은 낮다.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복의 사회적 위험을 많이 인지하여 규범적 의복동조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유행성

유행이란 어떤 개인을 떠나 하나의 객관적 실존을 지닌 집단 현상이고, 대중의 취미가 집단적으로 세련된 것이므로 전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에는 종종 극단적이고 기이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현세대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Roach와 Eicher, 1965). George Sigmel(Levine, 1971)도 유행을 사회적 요구의 산물로 보고, 추종성과 개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유행을 설명하였다. 즉, 유행은 같은 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결합시키고 동시에 다른 집단을 배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유행을 따름으로써 특이하며 주의를 끈다는 느낌 및 자기 자신과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을 동시에 갖게 한다는 것이다.

박혜선과 김화순(1998)은 유행성을 의복의 유행에 관심을 가지며, 유행하는 옷스타일을 좋아하고 선택시 유행을 수용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강혜

원(1974)은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개성은 의상에 있어 자신을 집단의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도록 착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엄밀히 말하면 의복반동조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 개성에 관심이 높은 남자는 유행에는 관심이 낮고, 반면 개성이 높은 여자는 의상의 외모에도 관심이 높았다.

이상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동조성과 개성, 동조성과 창의성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 개성과 창의성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감이 높았으며, 심미적 감각과 비동조적, 비관습적, 탈규범적 성향을 보이며, 광범위한 흥미와 개성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조성과 의복동조성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동조성과 의복비동조성과는 부적 상관관이 있었으며, 개성과 의복동조성, 창의성과 의복동조성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의복행동변인들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가설

가설 1. 창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의복동조성은 낮고, 의복비동조성, 의복자신감, 의상심미성은 높을 것이다.

가설 2. 개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의복동조성은 낮고, 의복비동조성, 의복자신감, 의상심미성은 높을 것이다.

가설 3. 동조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의복동조성은 높고, 의복비동조성, 의복자신감, 의상심미성은 낮을 것이다.

부가적 관심: 창의성, 개성, 동조성의 차이는 의복행동변인 중 의복중요성과 유행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가?

2. 측정도구

그 외에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학교소재지, 학교종류를 묻는 4문항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인의 측정도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에 사용된 각 변인의 측정도구

변인명	조작적 정의	출처 및 문항수	분석문항수	신뢰도
창의성	인지적 능력과 성격특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게 가치 있는 아이디어나 산출물을 생산해 내고자 하는 자발적인 과정.	최종인(1995)의 리커트형 5점 척도 9문항.	7문항	$\alpha=0.6337$
개성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 주는 행위 및 특징.	Maslach, Stapp과 Santee (1985)의 리커트형 5점 척도 12문항.	12문항	$\alpha=0.7460$
동조성	실제 또는 가상의 집단압력, 즉 심리적 압력의 결과로서 집단이 기대하는 대로 신념이나 행동이 변하는 것.	태도동조-이상로, 변창진과 진위교(1989)의 리커트형 5점척도로 변경한 진위형 척도 35문항.	6문항	$\alpha=0.5444$
		행동동조-Strutton, Pelton과 Lumpkin(1995)이 설계한 5점 척도 3문항.	2문항	$\alpha=0.5196$
의복자신감	자신이 의복을 잘 입는다고 생각하고 의복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김양진(1991)의 4문항, 박광희(1983)의 1문항, 박혜선(1990)의 2문항, 신옥순(1977)의 1문항, 이금실(1992)의 1문항, 이은미(1984)의 1문항 등 리커트형 5점 척도 10문항.	10문항	$\alpha=0.8823$
의상심미성	의복착용시 자신의 신체적 외모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의복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태도.	박혜선과 김화순(1998)의 3문항, 이명희(1982)의 5문항, Creekmore(1971)의 2문항 등 리커트형 5점 척도 10문항.	10문항	$\alpha=0.7923$
의복중요성	의복을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	김양진(1991)의 1문항, 김양진(1996)의 1문항, 정미실(1982)의 1문항, 정미실(1990)의 4문항, Hunter(1966)의 3문항 등 리커트형 5점 척도 10문항.	10문항	$\alpha=0.8796$
유행성	의복의 유행에 관심을 가지며, 유행하는 옷스타일을 좋아하고 선택시 유행을 수용하는 태도.	강혜원(1974)의 3문항, 박혜선과 김화순(1998)의 2문항, 이금실(1992)의 2문항, 정미실(1990)의 3문항 등 리커트형 5점 척도 10문항.	10문항	$\alpha=0.9057$
의복동조성 ① 동일시적 ② 정보-규범적 ③ 비동조적 (의복반동조 의복독립)	규범적 의복동조: 인정을 받거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준거집단의 의복규범을 따르는 것. 정보적 의복동조: 적절한 복식행동을 하기 위하여 준거집단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어 이에 동조하는 것. 동일시적 의복동조: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좋아하는 준거집단과 동일시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복을 모방하는 것. 의복반동조: 준거집단이 착용하는 의복과는 다른 의복을 착용하는 것. 의복독립: 준거집단이 착용하는 의복과는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의복을 착용하는 것.	규범적 의복동조-강혜원(1974)의 1문항과 박혜선(1990)의 2문항. 정보적 의복동조-박혜선(1990)의 2문항과 Moschis(1976)의 1문항. 동일시적 의복동조- 박혜선(1990)의 3문항. 의복반동조-박광희(1983)와 Selker(1966) 및 박혜선(1990)의 1문항씩 총 3문항. 의복독립-강혜원(1974), 정미실(1982) 및 박혜선(1990)의 1문항씩 총 3문항.	① 동일시-3문항 ② 정보-규범 5문항 ③ 비동조-5문항	① 동일시- $\alpha=0.7790$ ② 정보-규범 $\alpha=0.6890$ ③ 비동조- $\alpha=0.6689$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이라는 지역차이가 존재(김윤희, 1990; 김정희, 1990)하므로, 연구자들은 교복과 자유복을 착용한 서울시내 인문계 남녀고등학교 8개를 지역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강남과 강북에서 임의로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해 표본대상으로 선택된 학교는 아래의 <표 2>와 같으며, 8개 학교에 각각 80명씩 640명의 표본대상 중 통계처리에 사용된 표본은 남학생 317명, 여학생 312명으로 총 629명이었다.

자료수집은 1998년 7월 15일에서 25일 사이에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수업시간에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표 2>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 성별	강남		강북		합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착용복장 교복	80(S고)	80(K고)	80(D고)	80(S고)	315
자유복	80(H고)	80(M고)	80(S고)	80(K고)	314
합계	157	155	160	157	629

4. 자료분석

SPSS를 이용하여 각 척도별 응답에 관한 빈도,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t-test,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동조성과 의복비동조성의 요인분석

먼저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살펴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곧, 태도동조성은 행동동조성 및 정보규범 동조성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창의성, 개성 및 의복 비동조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행동동조성은 정보규범 동조성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며, 창의성은 개성, 의복비동조성, 의복자신감, 의상심미성, 의복중요성 및 유행성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서 동일시 동조성과 정보규범 동조성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나, 의복 비동조성과는 의미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복동조성과 의복비동조성의 유형을 밝히기 위하여 규범적 의복동조 3분항과 정보적 의복동조 3분항, 그리고 동일시

<표 3>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n=548

	1	2	3	4	5	6	7	8	9	10
1. 태도동조성										
2. 행동동조성	.093*									
3. 창의성	-.405***	.038								
4. 개성	-.314***	.025	.607***							
5. 동일시 동조성	-.054	.075	.031	.154***						
6. 정보규범 동조성	.138***	.130**	-.011	.096*	.528***					
7. 의복 비동조성	-.485***	-.053	.335***	.332***	.034	-.074				
8. 의복자신감	-.229**	-.042	.353***	.324***	.239***	.180***	.378***			
9. 의상심미성	-.160***	.040	.239***	.282***	.472***	.454***	.355***	.658***		
10. 의복중요성	-.059	.075	.203***	.203***	.391***	.489***	.221***	.561***	.725***	
11. 유행성	-.059	.037	.157***	.157***	.554***	.581***	.122***	.456***	.657***	.548***

*p<0.05 **p<0.01 ***p<0.001

적 의복동조 3문항, 의복반동조 3문항, 의복독립 3문항을 합한 15문항을 요인분석하였다. 주성분분석방법의 Varimax 방법에 의한 직교회전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각 문항을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요인에 포함시킨 결과 요인 1에는 동일시적 의복동조 3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는 3.526, 전체변량은 23.508%이었다. 요인 2에는 정보적 의복동조 3문항과 규범적 의복동조 2문항과 의복독립 1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는 2.398, 전체변량은 15.987%이었다. 요인 3에는 의복반동조 3문항과 의복독립 2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는 1.223, 전체변량은 8.153%이었다. 요인 4에는 규범적 의복동조 1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는 1.070, 전체변량은 7.132%이었다.

요인 1에 동일시적 의복동조 3문항이 포함되었으므로 요인 1을 동일시적 의복동조라 칭하고, 요인 2

는 정보적 의복동조 문항과 규범적 의복동조문항이 포함되었으므로 정보-규범적 의복동조라 칭하며, 요인 3은 반동조와 독립문항이 많이 포함되었으므로 의복비동조로 명명하였고, 요인 4는 1문항이 포함되었으므로 무시하기로 한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문항을 사용하여 요인분석한 박혜선(1990)의 연구와 비교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났다. 공통점은 동조성 9문항과 비동조성 6문항을 따로 요인분석했을 때 박혜선의 연구와 본 연구 모두 동조성 문항에서는 동일시-정보적 의복동조요인과 규범적 의복동조 요인이, 비동조성 문항에서는 의복반동조와 의복독립 요인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동조성 문항과 비동조성 문항의 15개를 한꺼번에 요인분석했을 때, 박혜선의 연구에서는 의복동조성 문항은 동일시-정보적 의복동조와 규범적 의복동조로 나타나고, 의복비동조성 문항도 의복반동조성과 의복독립성으로 구분되어 나타났으

<표 4> 의복동조성과 의복비동조성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H ²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동일시적 의복동조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옷을 모방한다.	.810				.694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옷과 유사한 옷을 입고 싶다.	.804				.655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옷과 유사한 옷을 구입한다.	.777				.664
정보-규범 의복동조	새 옷을 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를 원한다.		.725			.576
	옷을 살 때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산다.		-.604			.541
	옷을 입을 때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584			.464
	내가 속한 집단원들의 옷입는 기준에 맞추어 입는다.		.569			.414
	다른 사람들로 부터 얻게 되는 정보에 따라 옷을 산다.		.533			.568
의복 비동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과 상표의 옷을 입었는지 관찰한다.		.478			.456
	내가 속한 집단에서 옷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입는 사람이 되고 싶다.			.791		.672
	많은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과는 다른 특이한 옷을 입으려고 노력한다.			.744		.620
	나의 성격이나 기분을 자유롭게 나타내는 옷이 좋다.			.611		.436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옷을 입는 것을 싫어한다.			.556		.356
규범적 의복동조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다.			.492		.555
	학교갈 때는 통학복으로 적절한 옷을 입는다.				.715	.546
고유치 분산율		3.526 23.508	2.398 15.987	1.223 8.153	1.070 7.132	

나, 본 연구에서는 동조성 문항은 동일시적 의복동조와 정보-규범적 의복동조로, 의복비동조성 문항은 의복반동조성과 의복독립성 문항이 하나로 합쳐진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2. 창의성, 개성, 동조성이 의복행동변인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 개성, 동조성이 의복동조성, 의복비동조성, 의복자신감, 의상심미성, 의복중요성, 유행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창의성, 개성, 동조성의 정도를 평균을 중심으로 상, 하 집단으로 나누어 의복변인에서의 점수차이를 t-test한 결과는 아래

의 <표 5>와 같다.

창의성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보다 의복비동조성(p<0.001), 의복자신감(p<0.001), 의상심미성(p<0.01)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창의적인 인물일수록 비동조적 성향을 보이고(Torrance, 1972), 특이한 것을 선호하고 탈규범적(송인섭과 김혜숙, 1999)이어서 의복행동에 있어서도 집단의 규범에 맞추는 등 동조적 행위보다는 남들과 다르게 특이하고 자신의 기분이나 성격을 자유스럽게 드러내는 비동조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며, 창의적인 인물일수록 자신감이 있으므로(Torrance, 1972) 의복행동에서도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창의적일수록 심미적 감각을 지니고 있으

<표 5> 창의성, 개성 및 동조성에 따른 t-검정 결과

평균값(표준편차)

변인	창의성 3.1410(0.6069)			개성 2.5993(0.6169)			동조성					
							태도동조성 2.7627(0.6301)			행동동조성 3.7893(0.8108)		
	상	하	t값	상	하	t값	상	하	t값	상	하	t값
의복동조												
동일시 2.7845 (0.9863)	2.8204 (1.0023)	2.7503 (0.9707)	-0.837	2.9379 (0.9538)	2.6578 (1.0028)	-3.549***	2.7546 (0.9688)	2.8250 (1.0145)	0.876	2.8516 (1.0093)	2.6734 (0.9315)	-2.260*
정보규범 3.3130 (0.7334)	3.3170 (0.7603)	3.3096 (0.7056)	-0.124	3.3920 (0.7209)	3.2537 (0.7446)	-2.325***	3.3844 (0.7177)	3.2338 (0.7564)	-2.506*	3.3779 (0.7310)	3.2090 (0.7255)	-2.815**
의복비동조 3.3498 (0.6960)	3.5365 (0.6953)	3.1414 (0.6267)	-7.355***	3.5540 (0.6638)	3.1858 (0.6787)	-6.781***	3.1023 (0.6087)	3.6147 (0.6750)	9.837***	3.3080 (0.6860)	3.4113 (0.7108)	1.810
의복자신감 3.2579 (0.7226)	3.4631 (0.6799)	3.0118 (0.6987)	-8.011***	3.4699 (0.6711)	3.0908 (0.7214)	-6.723***	3.1369 (0.6777)	3.3939 (0.7393)	4.448***	3.2371 (0.7391)	3.2882 (0.7014)	0.857
의상심미성 3.3690 (0.6867)	3.5003 (0.6698)	3.2067 (0.6775)	-5.305***	3.5358 (0.6652)	3.2273 (0.6804)	-5.626***	3.2785 (0.6784)	3.4760 (0.6882)	3.536***	3.3839 (0.6924)	3.3463 (0.6785)	-0.661
의복중요성 3.8942 (0.7238)	3.9982 (0.7072)	3.7843 (0.7331)	-3.635***	4.0140 (0.6916)	3.7914 (0.7424)	-3.846***	3.8787 (0.7224)	3.9067 (0.7302)	0.475	3.9336 (0.7196)	3.8337 (0.7213)	-1.689
유행성 2.8091 (0.8639)	2.8603 (0.8708)	2.7452 (0.8564)	-1.626	2.9458 (0.8757)	2.7006 (0.8464)	-3.484***	2.7700 (0.8262)	2.8445 (0.9063)	1.052	2.8561 (0.8726)	2.7449 (0.8387)	-1.580

*p<0.05 **p<0.01 ***p<0.001

므로(Torrance, 1972) 의상심미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복동조성, 유행성에서는 창의성수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고, 창의적일수록 의복 중요성($p<0.001$)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의적일수록 의복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는 창의적인 사람일수록 광범위한 분야에 흥미를 갖는다는 송인섭과 김혜숙(1999)의 결과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의복행동에도 무관심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의복동조성은 낮고, 의복비동조성, 의복자신감, 의상심미성은 높을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개성이 강한 학생들은 약한 학생들보다 의복비동조성($p<0.001$)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Kefgan과 Touchie-Specht(1976)의 개성에 대한 정의 즉, 개성이란 독창적인 것, 다른 모든 사람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란 정의와 남과는 다르게, 특이하며, 자유스럽게 자신의 기분과 성격을 드러내는 의복차림을 선호하는 의복비동조성 요인의 개념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또한 주어진 교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복장을 변형해서 입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개성이 높았다는 정준교와 이선경(1999a)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개성이 강한 학생들이 복장변형이라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의복비동조성향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사료된다.

개성이 강한 학생들은 약한 학생들보다 의복자신감($p<0.001$)과 의상심미성($p<0.001$)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개성과 창의성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정준교와 이선경, 1999b), 개성은 창의적인 인물의 인성 특성 중 하나(송인섭과 김혜숙, 1999)인 만큼 창의적인 학생들이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심미적 감각이 있어서 의복자신감과 의상심미성이 높듯이 동일한 맥락에서 개성이 강한 학생일수록 창의성이 높은 학생들처럼 의복자신감과 의상심미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예측과는 반대로 개성이 강한 학생들이 약한 학생들보다 동일시적 의복동조성($p<0.001$)과 정보규범적 의복동조성($p<0.001$)이 의미 있게 더 높았는데, 이는 동조적 복식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대생들은 개성에 낮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는 Taylor(1967)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로써 개성주의자들은 비개성주의자들보다 매력적이고 이상적이며 선호하는 이들의 의복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며, 의복에 대한 정보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복규범에도 더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성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보다 의복을 중요하게 여겼고($p<0.001$), 유행성($p<0.001$)에서도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개성이 강한 여자는 의상의 외모를 포함한 유행성에 관심이 높다는 강혜원(1974)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개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의복동조성은 낮고, 의복비동조성, 의복자신감, 의상심미성은 높을 것이라는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동조성은 태도동조와 행동동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태도동조성이 낮은 학생들은 태도동조성이 높은 학생들보다 의복비동조성이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p<0.001$) 반동조적 복식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동조성이 낮다는 박혜선(1990)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태도동조성이 낮은 학생들은 높은 학생들보다 의복자신감($p<0.001$)과 의상심미성($p<0.001$)이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태도동조성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보다 정보규범적 의복동조성($p<0.05$)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규범적 의복동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동조성이 강하다는 박혜선(1990)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동일시적 의복동조와 의복중요성, 유행성에서는 태도동조성 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행동동조성수준은 동일시적 의복동조($p<0.05$)와 정보규범적 의복동조($p<0.01$)에 영향을 미쳤는데, 행동동조성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보다 동일시적 의복동조와 정보규범적 의복동조성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동일시적 의복동조와 규범적 의복동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동조성이 강하다는

박혜선(1990)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행동동조성은 의복비동조성, 의복자신감, 의상심미성, 의복중요성, 유행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기서 태도동조, 행동동조 및 의복(비)동조성이 모두 같은 종류의 동조임에도 불구하고, 태도동조는 의복비동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동동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위의 <표 3>에서와 같이, 태도동조는 행동동조($r=0.093$, $p<0.05$), 정보규범동조($r=0.138$, $p<0.001$), 의복비동조($r=-0.485$, $p<0.001$)와 유의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고, 행동동조는 태도동조($r=0.093$, $p<0.05$) 및 정보규범동조($r=0.130$, $p<0.01$)와 유의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것은 태도와 행동이 다르고, 의복비동조성이 행동동조보다는 태도동조와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동조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의복동조성은 높고, 의복비동조성, 의복자신감, 의상심미성은 낮은 것이라는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위와 같은 결과들이 남녀의 성에 따라, 강남과 강북의 지역에 따라, 교복과 자유복의 착용복장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를 추가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 6>에서와 같이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창의성, 개성, 태도동조, 행동동조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태도동조성을 보이는

<표 6> 성, 지역 및 착용복장에 따른 t-검정 결과

평균값(표준편차)

변인	성별			지역별			착용복장별		
	남자	여자	t값	강남	강북	t값	교복	자유복	t값
창의성 3,1410(0.6069)	3,1270 (0.6188)	3,1551 (0.5953)	0.500	3,1476 (0.5985)	3,1346 (0.6157)	0.791	3,1535 (0.5996)	3,1281 (0.6150)	0.606
개성 2,5933(0.6169)	2,5820 (0.5870)	2,6048 (0.6469)	0.645	2,5550 (0.5990)	2,6315 (0.6329)	0.123	2,5940 (0.5975)	2,5926 (0.6370)	0.977
태도동조성 2,7627(0.6301)	2,6992 (0.6185)	2,8268 (0.6362)	0.012*	2,7244 (0.6648)	2,8003 (0.5927)	0.137	2,7508 (0.6270)	2,7748 (0.6341)	0.638
행동동조성 3,7893(0.8108)	3,8471 (0.7722)	3,7306 (0.8452)	0.073	3,7460 (0.8302)	3,8317 (0.7902)	0.187	3,7667 (0.8598)	3,8123 (0.7583)	0.483
동일시 2,7845(0.9863)	2,7939 (0.9959)	2,7749 (0.9779)	0.810	2,7591 (0.9912)	2,8092 (0.9825)	0.525	2,8439 (0.9585)	2,7244 (1.0117)	0.129
정보규범 3,3130(0.7334)	3,2656 (0.7495)	3,3616 (0.7145)	0.103	3,3115 (0.7504)	3,3146 (0.7178)	0.958	3,3782 (0.7550)	3,2472 (0.7060)	0.026*
의복비동조 3,3498(0.6960)	3,3291 (0.6961)	3,3710 (0.6964)	0.452	3,3439 (0.6918)	3,3557 (0.7012)	0.832	3,3524 (0.6477)	3,3473 (0.7428)	0.927
의복자신감 3,2579(0.7226)	3,1821 (0.7338)	3,3346 (0.7039)	0.008**	3,3045 (0.7150)	3,2121 (0.7282)	0.111	3,2804 (0.7472)	3,2352 (0.6974)	0.435
의상심미성 3,3690(0.6867)	3,2462 (0.7093)	3,4948 (0.6400)	0.000***	3,3707 (0.7204)	3,3674 (0.6536)	0.952	3,4117 (0.7006)	3,3265 (0.6711)	0.124
의복중요성 3,8942(0.7238)	3,7972 (0.7703)	3,9932 (0.6598)	0.001***	3,8734 (0.7164)	3,9145 (0.7315)	0.478	3,9223 (0.7425)	3,8660 (0.7046)	0.331
유행성 2,8091(0.8639)	2,7511 (0.9186)	2,8672 (0.8026)	0.085	2,8212 (0.8672)	2,7971 (0.8619)	0.729	2,8685 (0.8873)	2,7487 (0.8366)	0.085

* $p<0.05$ ** $p<0.01$ *** $p<0.001$

것($p<0.05$)을 제외하고는 성별, 지역별, 착용복장별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의복행동에서는 지역별로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착용복장별로 분석하였을 때 교복착용자들이 자유복착용자들보다 더 높은 정보규범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리고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변인들이 몇 개 발견되었다. 곧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에게서 더 높은 의복자신감, 의상심미성, 의복중요성이 나타났다. 이것은 고등학생들의 의복행동이 지역이나 착용복장 보다는 성별에 의해 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창의성이 점차 더 중요해지는 사회를 맞아, 의복행동 중 동조적이지 않은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의복행동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창의성과 개성 및 의복행동 사이의 관계를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다. 연구를 위해 서울의 강남과 강북에 소재한 교복과 자유복을 착용한 8개 학교의 6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성이 확인된 변인들로 설계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담임교사들에 의해 학교수업시간 중에 배포되고 수거되었다.

가설 1)의 검증에서는 예측했던 것처럼 창의성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보다 의복비동조성($p<0.001$), 의복자신감($p<0.001$), 의상심미성($p<0.01$)에서 의미있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창의성 수준은 동일시적 의복동조성과 정보-규범적 의복동조성 사이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부가적 관심으로 창의성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보다 의복중요성에서 의미 있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p<0.001$) 유행성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가설 2)의 검증에서는 예측했던 것처럼 개성이 강한 학생들은 약한 학생들보다 의복비동조성($p<0.001$), 의복자신감($p<0.001$), 의상심미성($p<0.001$)

에서 의미 있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예측과는 반대로 개성이 강한 학생들은 약한 학생들보다 동일시적 의복동조성($p<0.001$)과 정보규범적 의복동조성($p<0.001$) 점수가 의미 있게 높았다. 부가적 관심으로 개성이 강한 학생들은 약한 학생들보다 의복중요성($p<0.001$)과 유행성($p<0.001$)에서 의미 있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조성을 태도동조성과 행동동조성으로 나누어서 살펴 본 결과, 예측했던 것처럼 태도동조성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보다 의복비동조성($p<0.001$), 의복자신감($p<0.001$)과 외상심미성($p<0.001$)이 의미 있게 낮았다. 그리고 태도동조성이 높을수록 정보규범적 의복동조성($p<0.001$)은 높았으나, 동일시적 의복동조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가적 관심으로 태도동조성 수준은 의복중요성, 유행성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행동동조성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보다 동일시적 의복동조성($p<0.05$)과 정보규범적 의복동조성($p<0.01$)이 의미 있게 높았으나, 의복비동조성, 의복자신감, 의상심미성, 의복중요성, 유행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의복동조성과 의복비동조성에 대한 15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박혜선, 1990)와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곧, 의복동조성 문항과 비동조성 문항을 따로 분석할 경우 본연구와 박혜선의 연구는 모두 공통적으로 동일시-정보적 요인과 규범적 요인 및 의복반동조 요인과 의복독립 요인으로 각기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동시에, 의복동조성 문항과 비동조성 문항을 한꺼번에 요인분석을 할 경우에는 박혜선의 결과와는 달리, 동일시적 의복동조, 정보-규범적 의복동조, 의복비동조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혜선(1990)의 의복동조성에 관한 척도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척도이지만,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창의성이 높을수록 의복비동조성, 의복자신감, 의상심미성, 의복중요성 점수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창의적 인물의 특성인 탈규범적, 비관습적, 비

동조성 성향과 높은 자신감, 심미적 감각, 다양한 분야에 대한 흥미 등이 의복행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복동조성과 유행성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개성이 강할수록 모든 의복변인 즉, 동일시적 의복동조, 정보규범적 의복동조, 의복비동조, 의복자신감, 의상심미성, 의복중요성, 유행성의 점수가 높았는데, 개성이 강할수록 의복의 여러 측면에 높은 관심과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의복행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예측대로 동조성이 높을수록 정보규범적 의복동조성은 높았고, 행동동조성이 높을수록 동일시적 의복동조성도 높았으나, 태도동조성이 높을수록 동일시적 의복동조성이 유의적으로 높지는 않았다. 또한 예측대로 태도동조성이 낮을수록 의복비동조성, 의복자신감, 의상심미성은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동동조성 수준에 따라 의복비동조성, 의복자신감, 의상심미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동조성 수준에 따라 의복중요성, 유행성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동조성보다는 개성, 창의성이 의복행동변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의복행동연구에 있어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동조성보다 개성, 창의성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창의성을 의복에 도입하여 연구한 본 연구의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의복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보임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외모와 의복을 중요시하고 의복에 자신감을 보이며, 심미적 감각이 있어서 개성적인 차림(의복비동조적 행위)을 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는 행위를 나무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개성의 표현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의복동조나 의복비동조의 행동을 직접 측정된 것이 아니라 질문지를 통하여 태도와 성향을 측정하였으므로 실제적인 의복행동에서 나타나는 동조나 비동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는 점,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만을 임의로 표집하였으므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후속연구로는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박혜선의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강혜원(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의상행위와 성격 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349-376.
-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김양진(1991).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진(1996). 유행의복이미지가 개인의 자아개념과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희(1990). 여자중학생의 교복에 관한 태도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1990). 서울시 남·녀고교생의 교복·자유복 착용에 따른 의복행동과 성격태도의 차이.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광희(1983). 여고생들의 의복행동과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광(1998). IMF 쇼크와 그 뿌리. 삼성경제연구소 이슈보고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박혜선(1990). 의복동조에 관한 연구-의복동조동기의 유형, 관련변인, 및 준거집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선, 김희순(1998). 의복태도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2), 279-289.
- 송인섭, 김혜숙(1999). 창의성 개념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암시적 창의성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3), 93-117.

- 신옥순(1977). 자아정체감과 외모를 통한 자기개념 및 개성에 관한 의복의 심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1989). 표준화 성격 진단 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금실(1992). 사회계층변인에 따른 여성의 의복태도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희(1982). 예의, 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미(1984). 여자중학생의 성격특성 및 또래집단 수용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원(2000). 동·서양의 하모니를 위한 창의학. 서울: 학문사.
- 정미실(1982). 남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실(1990). 규범적 및 정보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준교, 이선경(1999a). 복장 변형행동의 긍정적 심리효과: 창의성, 의상심미성, 개성, 자기효능감. 청소년학연구, 6(2), 145-175.
- 정준교, 이선경(1999b). 교복자율화가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3(3), 471-482.
- 최종인(1995). 집단창의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글학회(1991).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어문각.
- Allport, F. H. (1934). The J-curve hypothesis of conforming behavior.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 141-182.
- Asch, S. E. (1956). Studies of independence and conformity: I. A minority of one against a unanimous majority.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70(9), 1-70.
- Creekmore, A. M. (1966).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Report No. 783)*.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 Crutchfield, R. S. (1955). Conformity and character. *The American Psychologist*, 10, 191-198.
- Davis, L. L. (1984). Clothing and human behavior: A review.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3), 325-339.
- Deutsch, M., & Gerard, H. B. (1955). A study of normative and informational social influences upon individual judgmen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1, 629-636.
- Fromkin, H. L. (1973). The psychology of uniqueness: Avoidance of similarity and seeking of differentness. In G. B. Sproles(1979). *Fashion: 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Minnesota: Burgess Publishing Company.
- Hollander, E. P., & Willis, R. H. (1964). Conformity, independence and anticonformity as determiners of perceived influence and attraction. In E. P. Hollander(ed.), *Leaders, groups and influ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Hunter, M. K. (1967). A Comparison of clothing between negro and white women of low social-economic status. Unpublished Master thesis. University of Missouri. In A. M. Creekmore(ed.).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Report No. 783)*.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 Hurlock, E. B. (1929). *The psychology of dress*, New York: Arno Press Inc.
- Jahoda, M. (1959). Conformity and independence: A psychological analysis. *Human Relations*, 12, 99-119.
- Kefgen, M., & Touchie-Specht, P. (197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ew York: MacMillan
- Kelman, H. C. (1958). Compliance, identification and

- internalization: Three processes of attitude chang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 59-60.
- Kelley, H. H. (1952). Two functions of reference group. In G. E. Swanson, T. M. Newcomb, & E. L. Hartley(ed.).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 Kiesler, C. A., & Kiesler, S. B. (1969). *Conformity*. Reading, MA: Addison-Wesley.
- Levine, D. N. (1971). *George Simmel on individuality and social for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slach, C., Stapp, J., & Santee, R. T. (1985). Individuation: conceptual analysis and assess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3), 729-738.
- Maslach, C., Santee, R. T., & Wade, C. (1987). Individuation, gender role, and dissent: Personality mediators of situational for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088-1093.
- Moschis, G. P. (1976). Social comparison and informal group influe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3(3), 237-244.
- Park, C. W., & Lessig, V. P. (1977). Students and housewives: Differences in susceptibility to reference group influe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 102-110.
- Rabolt, N. J., & Drake, M. F. (1984-1985). Reference person influence on career women's dres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3(2), 11-19.
- Rhodes, M. (1961). An analysis of creativity. *Phi Delta Kappan*, 42, 305-310.
- Roach, M. E., & Eicher, J. B. (1965).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Y.: John Wiley and Sons.
- Selker, M. L. (1962). Conformity in dress: An exploration in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Unpublished master thesi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in A. M. Creekmore(ed.).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Report No. 783).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6). Creative giftedness: A multivariate investment approach. *Gifted Child Quarterly*, 37(1), 7-15.
- Strutton, D., Pelton, L. E., & Lumpkin, J. R. (1995). Sex difference in ingratiation behavior: An investigation of influence tactics in the salesperson-customer dyad.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4, 35-45.
- Taylor, L. C. (1967). Conformity in dress and selected color, design, texture and personality variables. Unpublished master thesis. Utah State University.
- Torrance, E. P. (1972). Predictive validity of the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6(4), 236-252.
- Walker, E. L., & Heyns, R. W. (1962). *An anatomy of conformit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Willis, R. H. (1963). Two dimensions of conformity-nonconformity. *Sociometry*, 26, 499-513.
- Willis, R. H., & Hollander, E. P. (1964). An experimental study of three response modes in social influence situ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9, 150-156.

(2003년 3월 29일 접수, 2003년 7월 9일 채택)